<이승민씨 강연을 보고>

20130940 장용훈

지금까지 많은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강연도 들어봤지만, 이번 강연이 가장 재미있었다. 강연자 분이 우리와 그다지 많이 차이 나지 않기도 하였지만, 뭔가 독특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사는 개발자여서 그럴지도 모른다. YOLO라는 말이 뭔가 신기했다. 저런 사람이 진짜 개발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우에는 개발이 즐거워서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취업의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 개발은 그러하다. 그래서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어디로 가야할 지, 어떤 기업이 나에게 맞는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 나는 아마도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 어쩌피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나에게 있어 개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고 있기에, 우선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가서 어떤 분야를 하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을지 고민이 아닌 실제로 부딪혀 가면서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나의 개발실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복수전공이라는 한계 아니 한계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면서 많이 움츠려 든 것 같다. 사실 나는 1전공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적도 잘 받아왔고,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들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서 모두 해냈고 완수했다. 그리고 열심히 잘했기에 교수님들의 연구실 조교 제의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살마들이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 재는 진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거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이제는 맞서 보고자 한다. 사실 기업의 면접에 가서도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받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나의 실력을 보여줘서 반전을 일으키고 싶다. 그때까지 남은 기간에 알고리즘도 열심히 공부하고,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실력을 키워야겠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항상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젝트의 기회들과 많은 대외활동 인턴들 모든 것을 떠나 보냈다. 단지 실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 자신감의 부재는 사실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한번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직 20대이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단지 도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 조금씩 미래를 설계해고 한 단계씩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막연한 미래,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은 자신의 자신감에도 좋지 않고, 결국에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포기하게 될 것 같다. 나는 이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